

'10강 진입' 광주 FC-‘6강 PO’ 전남 드래곤즈

주말 광양서 ‘옐로우더비’

광주와 전남의 ‘옐로우더비’가 주말 그라운드를 뜨겁게 달군다.

경기 무관행진을 달리고 있는 광주 FC가 16일 오후 3시 광양전용구장을 찾아 지역 라이벌 전남 드래곤즈와 2011 K리그 28라운드 경기를 치른다.

창단 첫해를 보내고 있는 광주에게 남은 경기는 3경기, 후반기 전력을 기다리는 12위 광주는 매서운 공격력으로 4경기 무관행진을 이어가면서 10위 진입을 노리고 있다.

전남은 6강 플레이오프 진출을 겨냥하고 있는 강적이다.

광주는 지난달 원정경기에서 3-1로 성남을 격파한 뒤 안방에서 부산과 울산을 상대로 승점 1점을 챙겼다. 지난주 대구 원정 경기에서 2-1 승리를 거두며 광주는 막바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는 순위싸움에 소용돌이를 일으켰다.

11위 대구와는 32점으로 승점이 같다. 광주보다 한 경기를 더 치른 10위 성남은 35점. 신생팀 광주 10위 목표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특히 앞선 대구전에서 김동섭, 이승기, 박병주, 김수범 등 주축 선수를 제외하고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선수 기용에도 여유가 있다.

전남은 갈 길이 바쁘다. 승점 41점의 전남은 5위 자리에서 부산(40점)·울산(39점)·제주(37점)의 추격을 받고 있다.

앞선 최하위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경기 종료 직전 동점골을 허용하면서 6강 굽히기에 실패, 분위기가 가라앉아있다. 또 광주와의 대결 이후에는 1·2위를 달리고 있는 전

북, 포항과의 경기를 치러야 한다.

광주는 최근 6경기에서 10골을 기록하며 승점 9점을 따냈다. 전남도 승점 9점을 올렸지만 8골로 득점면에서 광주가 앞서 있다.

전남과의 옐로우더비를 앞두고 있는 광주 최만희 감독은 “후반기 들어 주축 스트라이커들의 득점력이 올라오고 있다”면서 “축구는 득점을 해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선수들에게 그 부분을 강조했다”고 밝혔다.

10위 진입 그리고 6강행이라는 목표와 함께 지역의 자존심을 놓고 격돌하는 광주와 전남. 중요한 길목에서 만난 두 팀 중 어느 팀이 승점 3점을 챙길 수 있을지 주말 그라운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최나연(왼쪽)과 수잔 페테르센이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투어 사임 디비 대회 첫날 18번홀에서 그린을 익고 있다. 최나연은 5언더파 66타를 쳐 마리아 요르트(스웨덴)·브라타니 랭(미국)·데비 클레이어 세리펠(프랑스)과 공동 선두에 이름을 올렸다.

/연합뉴스

조광래호 ‘라이언킹’ 이동국 카드 어찌나

대표팀 복귀후 공격포인트 없어… 해외파 ‘주전기용’도 고민

조광래 감독이 이끄는 축구 대표팀이 2014년 브라질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 일정의 반환점을 놓았다.

대표팀은 3경기 치르면서 2승1무(승점 7·9득점 2실점)로 B조에서 퀄리티(1승2무·승점 5), 레바논(1승1무1패·승점 4), 아랍에미리트(3패)를 제치고 조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팀은 레바논과의 1차전에서 6-0 대승을 거둔 이후 원정으로 치른 쿠웨이트와의 2차전에서는 1-1로 비겼고, 홈에서 펼친 UAE와의 3차전에서는 2-1로 힘겹게 승리했다.

축구 전문가들은 소속팀에서 주전으로 뛰지 못하는 해외파 선수들의 주전 기용이 대표팀의 경기력을 떨어뜨릴 수 있음을 드러났다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때문에 조광래 감독에게 해외파와 K리

그 선수들의 효율적 활용 방안을 마련하는 게 최고의 숙제가 됐다.

◇해외파·국내파 효율적 활용 묘안 찾아야 = 조광래 감독은 월드컵 3차 예선을 앞두고 박지성(맨체스터 유니티드)과 이영표의 대표팀 은퇴 상황을 맞았다.

이 때문에 조 감독은 두 선수의 공백을 대체할 선수를 찾으면서 어린 선수 발굴에 힘을 쏟았다. 이를 바탕으로 이재성(울산), 홍철(성남), 서정진(전북), 손흥민(함부르크), 지동원(선덜랜드), 구자철(볼프스부르크), 남태희(알라간시) 등이 주요 선수로 발돋움했다. 하지만 손흥민, 지동원, 구자철, 남태희 등은 소속팀에서 주전급으로 활약하지 못한 영향으로 최근 A매치에서 만족스러운 경기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이 때문에 이동국이 대표팀에 계속 발탁될지가 팬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팀을 찾지 못하면서 한동안 극심한 부진을 보여주면서 해외파 선수들의 ‘무조건 주전 기용’은 논란을 빚기도 했다.

◇리이언킹’ 이동국 카드 계속 쓰나 = 이번 UAE와의 월드컵 3차 예선은 앞두고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동국의 대표팀 복귀였다.

이동국은 올해 K리그에서 16골-15도움의 맹활약을 펼치자 조 감독은 1년 3개월 만에 이동국을 대표팀으로 불러들였다.

이동국은 폴란드와의 평가전에서 전반전 만 뛰었고, UAE전에서는 후반 35분 머리를 다친 박주영(아스널)을 대신해 투입됐다.

하지만 오랜만에 태극마크를 단 이동국은 변화된 팀 전술에 능아들지 못하면서 두 경기에서 모두 공격포인트를 올리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이 때문에 이동국이 대표팀에 계속 발탁될지가 팬들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연합뉴스

27홀 창조적 코스레이이웃 ‘굿샷’

유럽풍 클럽하우스·정원 ‘원더풀’

나주 해피니스CC 호평

나주 다도면 풍산리에 위치한 해피니스CC(대표이사 유남종)가 지역 골프 마니아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

해피니스CC는 무등산과 나주평야, 영산강이 굽이쳐 흐르는 3각 트라이앵글의 구릉지에 위치해 바람이 적고 일조량이 풍부한 천혜의 입지조건으로 최적의 라운딩 환경을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다.

27홀 코스도 창조적이고 전략적인 셔이 요구되는 코스레이아웃으로 설계돼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스릴을 제공한다. 또 유럽풍의 화려한 클럽하우스와 정원도 골프 마니아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해피니스CC는 정회원 및 주종회원을 참여분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모집하고 있다.

입회금액 1억원에 선착순으로 모집하는 해피 정회원에게는



그린피가 면제되고 월 4회의 주말부킹 보장과 향후 골프텔 개장 시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입회금액 3300만원에 모집하는 주중·평일회원은 선착순 30명에 한하여 300만원을 할인해 주며 그린비(주중)의 70%까지 할인을 해준다. VIP정회원(3억3000만원), 휴먼정회원(1억5000만원)도 선착순으로 모집 중이다.

유 대표는 “회원들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골프장을 만들기 위해 만족스런 코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인기자 kki@kwangju.co.kr

신 행 안 내

관광ルー원 회장(한국관광·해외 및 섬)은 계약기사 불가합니다!

또한 신한회원(단신 여행자)은 경유는 따로 인증비면입니다.

10월 15일(토)

여 07 : 50분에 회관후문 08 : 00비엔날레주차장앞 구묘정침구 *다음카페: 광주미포요상회(010-7750-7101) 010-902-3925, 010-3649-8934

▲광주미포요상회(010-7750-7101) 010-902-3925, 010-3649-8934

▲전남식약처(010-7750-7101) 010-902-3925, 010-3649-8934

▲별곡미포자신의학회 회장(한국·영국·미국) 010-7750-7101 010-902-3925

▲별곡미포자신의학회 회장(한국·영국·미국) 010-7750-71